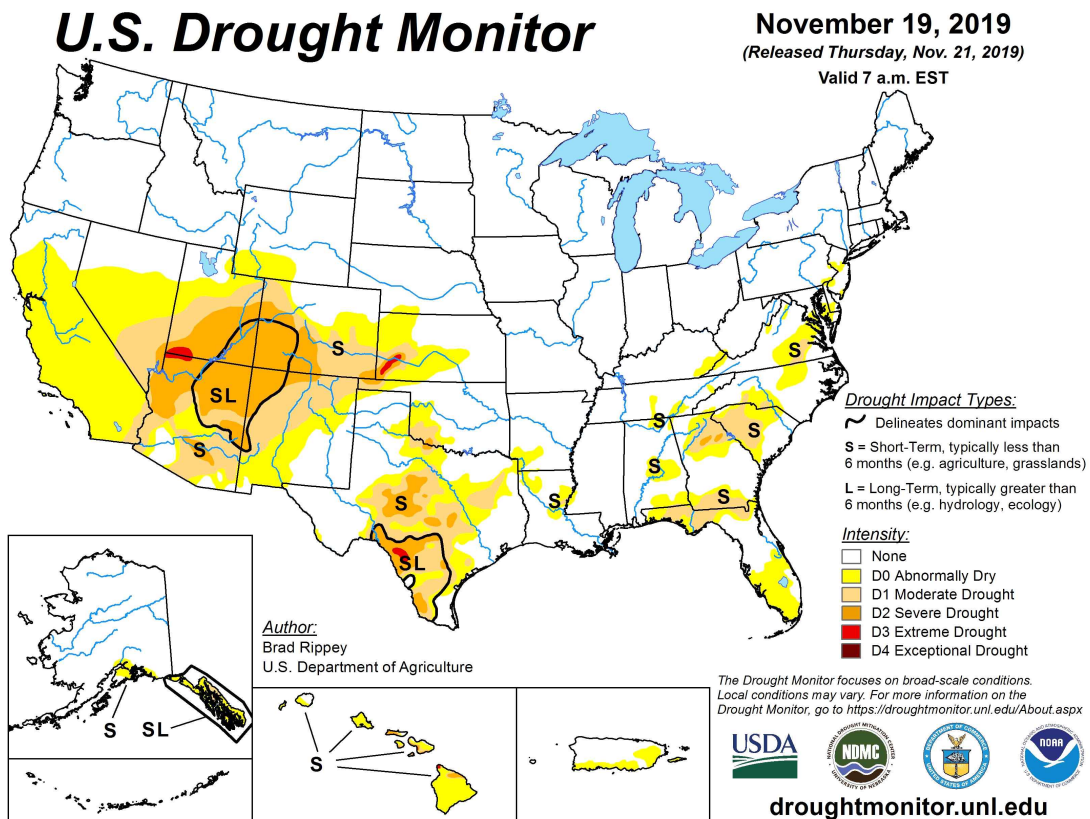


11월 2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87)

□ 미국 기후 현황(11/17~11/23)

남서부에서 2019년 봄 이후로 가장 영향력 있는 폭풍이 대분지 남부와 포 코너스 주들의 일부에 가뭄을 완화시켜주는 비를 내려주었다. 호우가 남캘리포니아에도 내렸다. 한편, 태평양 북서부에서부터 로키 북부까지는 대체로 가벼운 비가 내렸다. 서부에서 폭풍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계속 높았다. 게다가 평원 전역은 11월 중순 한바탕 추위가 닥친 후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 (많은 지역에서 평년보다 5-10° F 이상)이 다시 돌아왔다. 먼 동쪽은 다시 한 회전의 비가 내려서 남동부에 잔존했던 가뭄 포켓을 완화시키거나 완전히 없앴다. 남동부 내륙에 걸쳐서 총 1-2인치 또는 그 이상으로 내렸던 비 때문에 야외 작업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초지, 겨울 곡류, 피복 작물들에게 유익했다. 강우 이후에 추운 조건들이 따라오면서 동부의 어떤 위치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 F 이상 낮아졌다. 반면에 남텍사스와 북캘리포니아에서부터 평원 북부까지를 포함하는 여러 지역들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그 밖에 중서부는 계속된 강우기로 인해서 옥수수과 콩의 수확 속도가 계속 지체되고 있었다. 옥수수 벨트 북부에서는 곡류 또는 유지작물의 수분 함량이 높아져서 어떤 지역은 수확하기가 까다로웠다.



□ 농업 현황 요약(11/18~11/24)

남서부 대부분 즉, 위아래 미시시피 계곡, 대서양 연안 중부, 북동부 지역은 한 주간 평년 이상의 강우량을 보였고 애리조나 일부는 3인치 이상이 보고되었다. 미국 서부 절반 대부분에서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2° F 이상 높았다. 대평원 북부 일부는 평년보다 8° F 이상이었다. 반면에 북동부 대부분, 옥수수 벨트 동부, 대서양 중부, 남동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2° F 또는 그 이상 낮았다. 플로리다와 메인의 일부는 평년보다 4° F 또는 그 이상 낮았다.

□ 세계 기후 현황(11/17~11/23)

■ 유럽: 동쪽으로 강하고 높은 장애물처럼 작용하고 있는 일련의 폭풍 전선이 대서양 북동부에서부터 남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지중해 중부에서부터 서서히 북-북서쪽 방향으로 뒤쪽으로 휘고 있었다. 이로 인해서 변이가 심하기는 했지만 또 한 차례의 광범위한 소나기(2-55 mm)가 중유럽과 북유럽에 내려서 겨울 작물을 위해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고 있었다. 먼 남쪽은 위에 언급한 폭풍으로 인한 호우(25-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와 돌풍으로 이탈리아와 발칸 서부에 계속적으로 지역적 홍수를 일으켰고 먼 내륙의 높은 고도에 내린 눈으로 산지의 설고고원과 이후의 봄에 눈 녹은 물의 양에 대한 이른 철 전망치를 상승시켜주었다. 다뉴브강 계곡 아래쪽(10-40 mm) 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 남부에도 계속되던 가뭄 지역에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15-80 mm). 다만, 세르비아는 많은 곳들이 여전히 좋지 않은 건조(5 mm 미만, 지역적으로 9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미만)가 계속되었다. 날씨가 9월은 건조했지만, 올 가을은 유럽의 많은 곳이 기록적으로 가장 습한 때 가운데 하나였다. 고기압 장벽이 동부 재배 지역 전역에 아주 따뜻한 날씨를 유지해주어서(평년보다 3-8° C) 겨울밀과 유채가 휴면에 들어가지 못했다. 반대로 서유럽에는 좀 더 추운 조건들(평년보다 1-3° C 낮음)이 계속되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겨울 작물들은 쉽게 휴면에 들어가고 있었다.

■ 호주: 밀 벨트 대부분에서 2주 연속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밀, 보리, 캐놀라의 성숙과 수확을 촉진하고 있었다. 주말에 뉴 사우스 웨일즈 북동부와 퀸즐랜드 남서부에서는 국지적인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렸지만 소나기의 양이 너무 적었고 넓은 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가뭄 해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 동호주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화와 수수의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이 여전히 좋지 않았다. 서호주는 기온이 평년 근처였고 남호주와 동호주는 평년보다 2-4° C 높았다. 남부와 동부에서는 주 중간에 최고 기온이 낮은 섭씨 40도대까지 올라갔다. 뜨거운 날씨가 강풍과 결합되면서 겨울 작물의 건조 속도를 재촉했지만 파괴적인 들불을 부채질하여 지역 농촌 사회에 피해를 입혔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서부 농업 지대 전체에 계속해서 유익한 비가 내려서 미성숙 겨울 곡류와 출현 중인 여름작물들의 전망을 더욱 향상시켜주고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살타를 지나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대에 총 강수량 10-50 mm의 비가 내렸고 파라나 강 계곡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와 엔트레 리오스)에는 우기가 시작되었다. 반면에, 북동부에는 수 주간 내리던 유익한 강우가 끝나면서 좀 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서부에서 전통적으로 보다 건조한 곳들에서는 다시 날씨가 건조해졌다. 이곳은 비가 산발적으로 내렸다. 철 아닌 따뜻함 (이 지역의 많은 곳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 C 높음)으로 인해서 높은 증발산량이 유지되었고 겨울 곡류가 계속 발달하여 수확량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21일 현재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파종은 각각 83과 46 %였는데 두 작물 모두 작년과 비교해서 10 % 지체되고 있었다. 콩은 36 % 파종되었는데 작년보다 3 % 적었을 뿐이었다. 면화는 작년의 65 %와 비교해서 60 % 수확되었다.

■ 브라질: 북동부 내륙은 소나기가 내려서 필요했던 건조 해소가 이루어졌지만 다른 많은 여름작물 생산 지역에서는 강우가 약해졌다. 파라와 마란하오 서부에서부터 남쪽 및 약간 동쪽으로 미나스 게라이스를 지나기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25mm에서부터 지역적으로는 100 mm 이상이었는데, 콩과류와 기타 주요 여름철 작물들의 발아와 활착을 위해서 아주 필요했던 수분을 상승시켜주고 있었다. 반면에, 마토 그로소 남부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는 좀 더 건조한 조건들 (강우 총량이 25 mm 미만)이 우세했다. 철에 맞지 않게 뜨거운 날씨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 C 높았고 최고 기온은 높은 섭씨 30도대까지 올라감)가 건조를 동반하여 두류와 1차 작물 옥수수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지만 대부분의 작물들은 생식기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18일 현재 콩과 1차 작물 옥수수의 파종은 사실상 완결되었고 좀더 일찍 파종된 작물은 생식기에 들어가고 있었다. 밀은 98 % 수확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옥수수는 11월 21일 현재 84 % 파종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5년 평균 속도 (87 %)보다 약간 뒤쳐진 것이었다. 콩은 평균 60 % 대비 53 %였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밀 수확은 91 % 끝났는데 5년 평균치와 같은 수치였다.